

사명을 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2:1-10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무조건 성취된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이 일은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막는 자는 전부다 죽었다. 광야는 환경이 안 좋다. 이 환경도 이 일을 막지 못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죽는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 오는데에는 더 이상 아무도 막을 못하는 것이다. 홍해는 아직까지 한번 더 갈라진 적이 없다. 홍해 앞에서 죽어야 하는데, 홍해가 갈라져버렸다. 요단강도 그렇고, 여리고 성도 손 안 댔는데 무너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기를 원하시는 일의 권세이다. 언약 되면 성취된다. 인생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일단 하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다. 너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사람 살리고 내가 먼저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생에는 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답을 잘 모른다. 밖에 나가면 이 답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답을 아는데 그것을 답으로 받지를 않는다.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답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만 고치면 된다. 그러면 막지 못할 축복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그 답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는 것이다. 그 약속의 피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신다. 사단의 역사,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 못한다. 해도 필요 없다. 결국은 사단 무너지게 되어 있다. 과정 중에 있을 때에는 괴롭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가는 것은 과정이다. 사단이 역사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옥으로 가는 재앙을 해결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피를 답으로 잡지를 않는다.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려고 발버둥 치면 어느날 답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근본문제중 하나일 것이다. 처음 주신 답을 잃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 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언약으로 잡고 살면 무조건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저주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이 메시지를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망한 것 같은데, 결국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도 언약되면 이런 인생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할 일이 많다. 우리도 과정중에 있다. 미국 살려야 하고 남미 끝까지 가야 한다. 위하여 렘넌트 운동 해야 되고 다민족 운동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것을 잡고 누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을 받는 시간, 응답 받는 시간 되기 바란다.

1. 사명을 받은 사람

가졌다기보다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시대적인 사명자였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다. 정치를 정복하고 시대를 바꾸었다. 인간 중에서는 표본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불신자 다 통틀어서 세계사 통틀어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작은 조그만한 복음 운동이었는데, 전부 역전되었다.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는 것은 새로운 사상과 스타일, 가치관이 다 바뀐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진짜 쉽지 않다. 동네 문화 하나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것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조그만한 복음운동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문화가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 운동의 능력이다. 우리는 조금 안되면 낙심하기 쉽다. 절대 낙심할 이유 없다. 사도 바울도 250년 걸렸다. 확인할 것이 있다. 복음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이 있기 바란다.

한명한명 개인적으로 이 언약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수시로 듣는 대로, 아니면 시간을 정해 놓고 정식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갈라디아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다.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후에 읽어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심되는 사도들에게 자기가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러 가는 것이다. 2절에 보면 사사로서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좀더 상세하게 말할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바나바와 함께 간 것을 보면 바나바와 헤어지기 전에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때에도 당연히 지금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짓 형제라고 말한 것은 거짓으로 믿는 행실을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믿는데 거짓으로 믿거나 믿는데 답이 덜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할례였다. 우리가 할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의 피제사이다.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 약속의 피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유대인은 한명도 없었다. 할례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할례는 언약이 아니다. 근본 언약은 약속의 피제사이다. 거기서 나온 약속의 피제사를 한번더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다. 그래서 근본보다 근본에서 나온 것을 더 강조하니, 그 때부터 이미 종교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할례는 구원과 관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당시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할례도 해야 한다는 유대인도 많았다. 바울이 깨닫기는 그것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디도, 중요한 제자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6:3절에 보면 디모데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인데, 디도는 완전 헬라인이고, 디모데는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다. 그래서 구원과 할례는 관계가 없지만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면 할 수고 있는 것이고 안해도 되는 것이다. 복음에 유익한데로 얼마든지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에 있으므로 모든 것에 자유하다.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서 5절에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하려고. 이것이 사명 가진 자의 자세인 것이다. 복음이 현장에서 바로 증거되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정확한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자기가 막아준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다. 2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갑자기 온 것이다. 이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밥 먹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율법에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 이때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다고 써 놨다. 이걸 보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써놨다. 참 놀라운 일이다. 베드로가 누구인가? 수제자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했다. 아마 베드로가 아직 복음이 끝까지 정리는 안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다. 그러나 복음의 구체적인 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되었다는 말이다. 끝까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자유다. 복음은 자유이다.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때 만일 바울이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굽혔으면 베드로의 체면은 섰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권세는 적어도 반토막 났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선택 안한다는 것이다. 여기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중에, 본래 어떤 이들든지 상관없다는 것이다. 나는 오직 복음이지, 사람 무시하는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복음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상관 없다는 것이다. 써 놨다. 본래부터 누구든지 간에 내게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답 나와 한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았고 가장 먼저 고백을 했다. 구체적으로 끝까지 답이 안나서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되는 줄로. 뭔가 정리가 안 되었다. 그러면 메시지가 끝까지 못간다. 예수는 그리스도 매일 이야기 한다. 그런데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해야 예수가 확실히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다. 이것만 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지어도 너 지옥 안간다는 것 까지 말해 줄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였다. 이런 때 놓치면 절대 안된다. 순간인데, 확실히 짚아서 이야기 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하나님 기뻐했을 것이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잘못된 복음 해석에 대해서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한 적이 없다. 단 한번도 그들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인정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바울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답이 난 자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바울처럼 살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우리 인생은 복음 만큼 된다. 내 응답은 나의 복음 만큼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복음이 기준이다. 나의 복음은 어느 정도의 복음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정도를 결정한다.

## 2. 정확한 복음의 권세

복음에는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있다. 이것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면 정확하게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때린다고 생각해보라. 망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땅을 칠 것이다. 그런데 그 망치가 정확하다면 뱀의 머리를 정확하게 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특징중 특징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고 끝까지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바울을 따를 자가 없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하여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도 바울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사명으로 받았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세계사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란에서 백만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한다. 우리 모슬람권에 보면 꿈에 예수님 나와서 바로 결단했다는 것을 한번씩 본 적이 있다. 이란이 어디인가? 다른 어떤 중동국가보다 정치적으로까지 모슬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젊은 왕이 나타나서 많이 풀었다. 전에는 여자들이 운동경기할 때 구경도 못하는데, 지금은 할수 있다고 한다. 사도 바울의 조금마한 복음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 문화가 이란에 침투하여 일단 백만명 뒤집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 이방인 전도를 언약으로 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미국, 언약으로 받았다. 될지 안될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언약이다. 우리는 될지 안될지를 믿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다. 분명히 남미 끝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식 선고를 통하여 남미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모세 복음 아주 정확했다. 창세기를 썼다. 창세기 3장 15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소원,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았다. 그게 호렘산 사건이다. 시대적 응답 받았고 시대적 증인 되었다. 세상은 그들을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다. 사도 바울의 처음 전도 시작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것이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기에는 진짜 놀랍다고 하겠지만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되는 것이다. 근본 복음, 언약을 알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때 복음에 대한 이

해가 정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복음이 정확안한데, 돌아다니면서 말하면 하나님 답답하다.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한명에게라도 말해야지.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바르면 응답 받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언약이 되면 우리 인생은 날개를 다는 것이다. 쌍권총 권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된다. 천지 개벽같은 성경적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다. 천지개벽안인가? 바다에 막혀서 죽게 되었는데, 바다에 길이 났다는 것은 천지개벽인 것이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 나왔다는 것은 천지개벽이다. 그 분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팀 사역 전도와 나라담당이라는 단어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다음주에 있을 임직식에도 당연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많이 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언약 다시 잡기 바란다. 우리는 팀 사역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승계하기를 원한다. 나라 담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승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뿐이다. 진짜로 하나 뿐이다. 그냥 늘 듣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뿐이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다. 내 인생이 여기에 통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가나안 땅 가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도 못 막았다. 내 인생도 아무도 못 막아, 내 인생이 여기에 출을 서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 했다.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고 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 진짜 오직이야, 이 말이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광야는 들어가면 삼일만에 죽는데라는 것이다. 그런데 40년 살았다. 가슴에 들어와서 언약 되기를 바란다. 인생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나는 복음을 모르던 그 때를 한번씩 생각해 본다. 기도 응답이 안되어 기도 안한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던 소리를 하고 있다. 나도 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내가 돌았는가? 돌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살리는 것이다.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왜냐면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바른 복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 왜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바른 내용을 가졌으므로. 이것을 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바로 알기도 해야 한다. 정리도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전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한다. 이 힘도 복음에서 나온다. 복음을 누리는 중에 어느날 눈을 뜨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마음에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 하나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원하는 말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메시지이다. 우리 중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바란다. 미국에 진짜 문이 열리면 이 일을 정확하게 할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은 갈수록 혼미해져가고 있다. 여러 가지로 혼미하다. 문화적, 정치적으로, 가치관이 다 깨져서 되나 싶다. 그런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성경에 써 놓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저런 소리로 무너뜨리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바른 말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바르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끝까지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은 틀린 소리에 죽어간다. 말 씀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임하면 세상이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 말고는 세상 살리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다. 답이 없으니 그 틀린 소리가 틀린지 맞는지도 모른다. 우리도 사실 헤맸다.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알았다. 내 주위에 귀신들린 사람이 대여섯 명 있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복음을 모르던 영적으로 까막눈이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기 바란다. 깊은 기도의 축복으로 이것을 언약으로 누리는 한 주간에 되기 바란다. 그래서 풍성한 증거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메시지를 바로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맞다는 것을 내 개인인생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 길이 뭐냐면 이 언약을 누림으로 받는 응답이다. 그러면 확인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든제 확실하게 말할수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